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신석하 KID 거시금융연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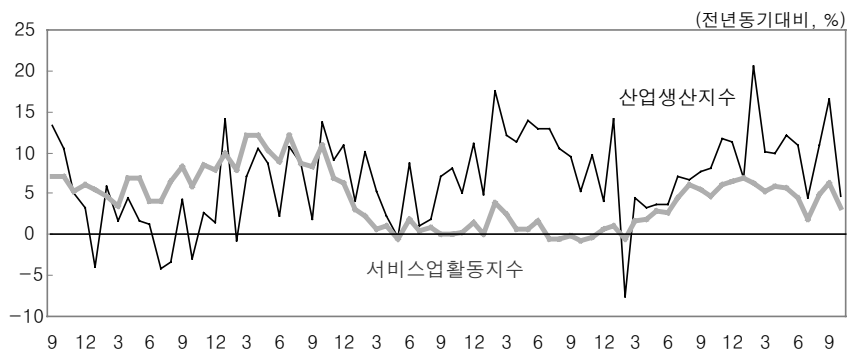
전반적인 경기동향

최근 경제지표들은 금년 1/4분기 이후 완만히 둔화되어 오던 경기가 점차 안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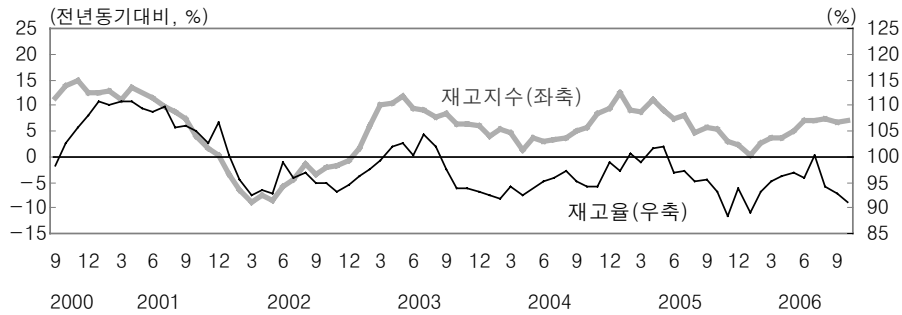
최근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의 증가세는 추석연휴 시기 이동의 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중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4.6% 증가하여 전분기(10.6%)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조업일수 변동을 적용한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생산도 10월중 3.2% 증가하여 전분기(4.3%)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추석시기 이동효과가 제거된 9~10월중 평균으로는 4.8% 증가를 기록하였다.

산업생산 및 서비스 생산 추이



재고지수 증가율 및 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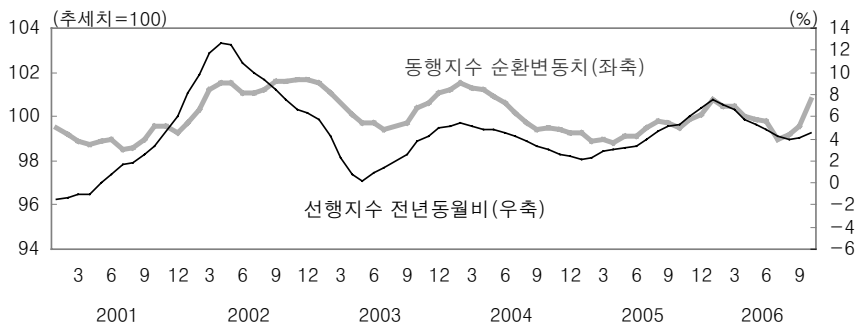


재고의 증가세도 6월말 이후 6~7%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다. 10월중 생산자제품재고는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여 전분기(6.8%)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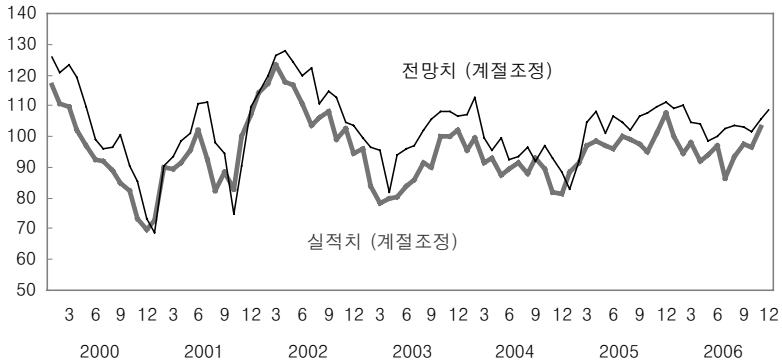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의 경우 3/4분기 이후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월중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상당부분 지난 7월의 부진에 대한 반동의 영향으로 보이나, 8월 이후의 완만한 개선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들의 체감경기와 소비자들의 심리지표도 다소 안정되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실사지수가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지수들은 7월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월중 한국은행 제조업업황 BSI는 전월대비 3p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악화되었음을 시사한 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 BSI(계절조정)는 11월중 102.9를 기록하면서 전월(9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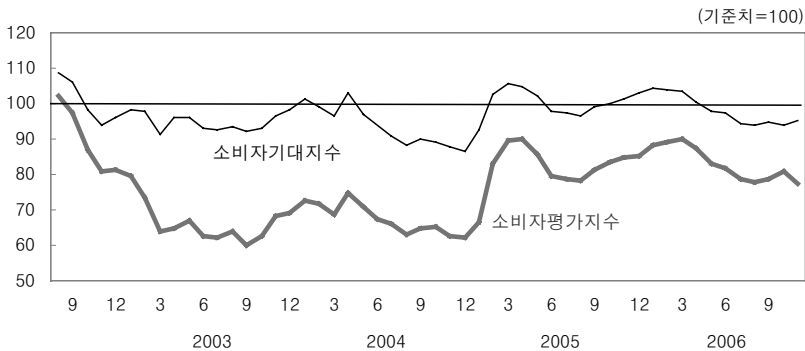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전경련)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한국은행)



하였으며 12월 전망치(계절조정)도 전월 (105.5)에 비해 상승한 108.4를 기록하였다. 한편 11월중 소비자평가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77.3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보다 상승한 93.9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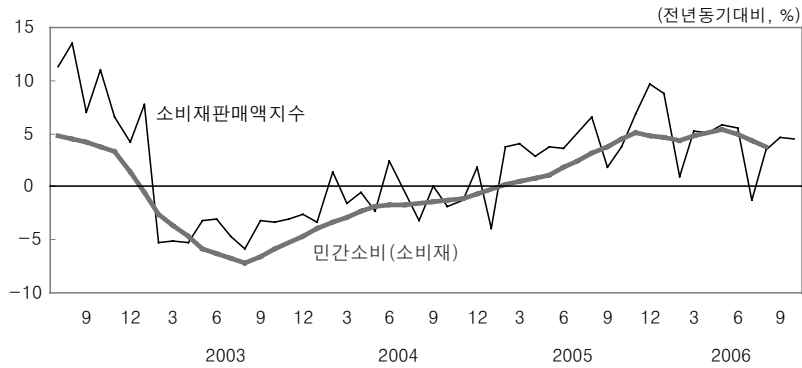
II 부문별 동향 및 평가

소비증가세가 금년 1/4분기 이후 둔화되어 왔으나, 최근 소비관련지표들은 증가세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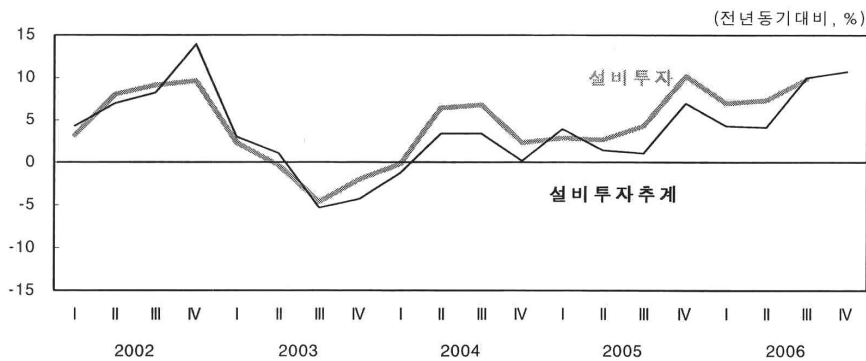
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10월중 소비재판매액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여 3/4분기(2.2%)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증가세 둔화 현상이 완화된 데에는 9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설비투자는 건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월중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은 추석연휴 시기 이동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9~10월 평균으로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설비투자추

민간소비와 소비재판매액지수



설비투자과 설비투자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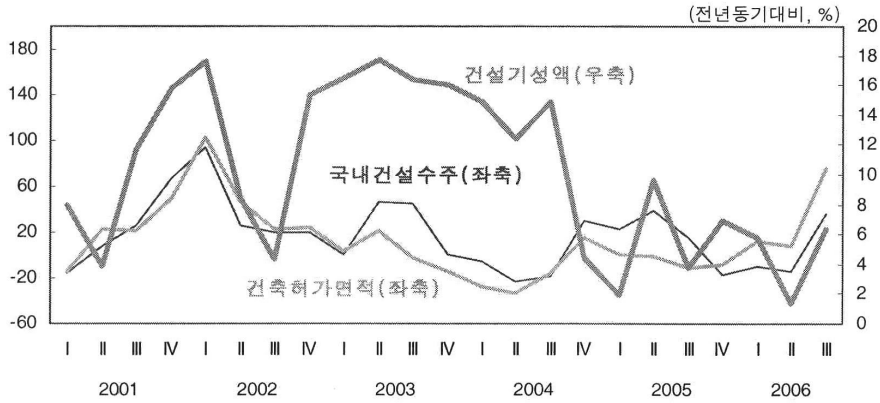
계 및 기계류내수출하의 경우 9~10월 중 각각 전년동기대비 10.7% 및 10.2% 증가하여 전분기(10.0% 및 6.1%)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9~10월 중 전년동기대비 34.9% 증가하여 전분기(15.6%)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된 모습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최근 선행지표들의 증가세가 다소 부진하기는 하였으나, 동행지표들의 증가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10월중 건설기성액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여 전분

기(6.4%)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면적은 10월중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지표의 부진은 9월중 크게 증가하였던 데에 대한 조정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은 11월중 19.8% 증가하는 등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우리수출과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도 최근 안정되는 모습이다. 한편, 수입은 유가 하락에 기인하여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

건설투자관련 지표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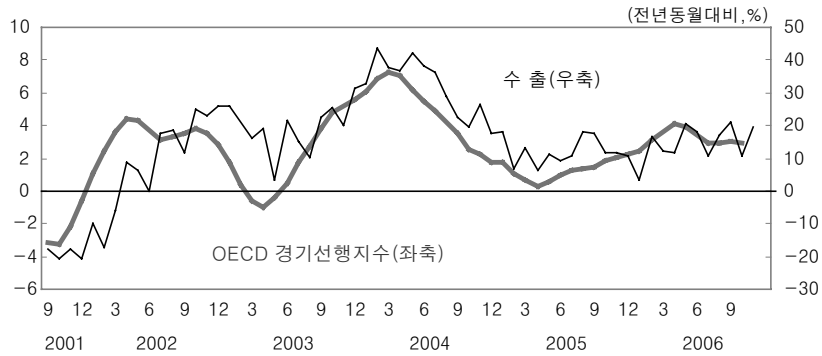
	비중 ¹⁾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건설투자	1.00	0.4	1.6	0.3	0.9	1.2	-3.9	-0.6	-	-
(계절조정)	-	-	(1.8)	(-0.8)	(0.0)	(0.6)	-3.9	(2.9)	-	-
건물건설	0.59	-1.0	0.6	-0.5	1.3	2.0	-5.9	-2.1	-	-
토목건설	0.41	2.4	3.1	1.5	0.4	-0.3	-1.2	1.5	-	-
디플레이터	-	3.2	3.4	2.6	1.8	1.5	2.8	4.0	-	-
건설기성액 ²⁾	1.00	5.7	9.6	3.8	6.9	5.8	1.4	6.4	16.0	7.4
공공부문	0.31	-1.0	3.1	-6.6	0.4	-10.0	-4.1	9.8	19.1	19.5
민간부문	0.66	8.7	13.0	8.5	9.2	12.6	3.8	5.7	14.3	3.7
국내건설수주	1.00	9.5	38.5	15.8	-17.9	-9.7	-14.1	36.2	94.1	1.5
공공부문	0.26	1.6	73.7	0.0	-26.3	-11.3	-28.3	22.3	84.0	34.5
민간부문	0.70	16.2	30.9	29.1	-5.8	-6.0	-5.6	36.0	94.6	-10.9
건축허가면적	1.00	-5.1	-1.0	-11.0	-8.2	13.0	7.9	75.7	54.2	-19.1
주거용	0.45	0.4	8.6	-4.7	-14.0	19.5	-10.9	69.0	98.2	-32.6
상업용	0.21	-24.5	-29.1	-25.7	-8.2	-0.9	24.2	104.8	40.5	16.7
공업용	0.12	-7.9	16.3	-21.5	-5.5	30.4	6.2	43.7	-14.3	-4.1

주: 1) 비중은 2005년 연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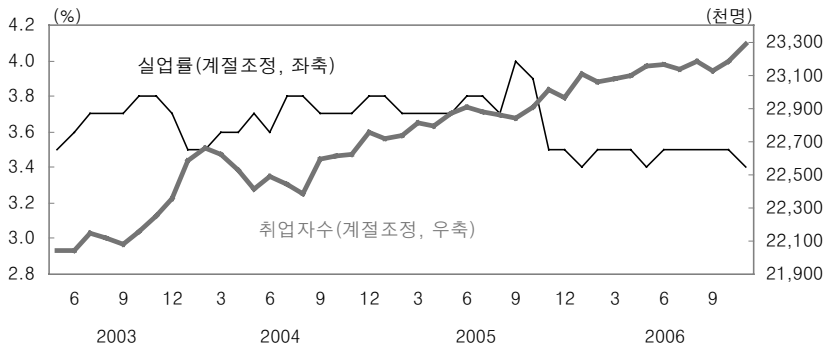
2) 건설기성액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은 명목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OECD경기선행지수와 우리 수출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자수



로 9월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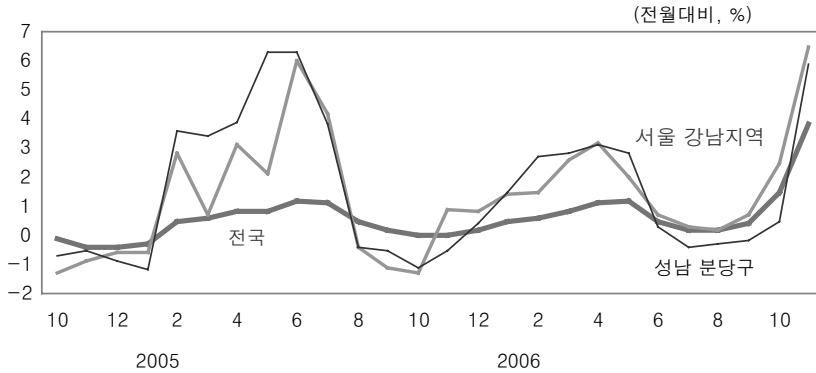
둔화되던 경기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고용사정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11월중 계절조정 취업자수 증가율과 실업률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1.2%와 3.5%를 유지하였으며, 계절조정 고용률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0.2%p) 상승한 59.8%를 기록하였다.

유가·환율·기후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하

여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10~11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분기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배제된 근원물가도 전분기대비 0.1%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1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3.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III 대내외 경제여건

미국경제는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증가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주택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취업자수 증가도 다소 둔화되는 등 경기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7년 미국경제가 내수 성장세 둔화로 2006년보다 낮은 2.2~2.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소비가 다소 부진하나, 설비투

자와 수출의 호조를 바탕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의 2007년 성장률은 미국의 수요부진의 영향으로 2006년보다 다소 낮은 2.0~2.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경제는 투자지출을 중심으로 내수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유로경제가 2007년에 금리인상과 긴축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2006년보다 다소 낮은 1.7~2.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중국경제는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10%에 근접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불안요인의 해소에 따른 원유수급 안정으로 9월 중순 이후 배럴당 60달러(두바이 기준) 아래로 하락한 후 55~60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다. 원유이외 원자재가격은 11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IV 향후 전망

경기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2007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06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4%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경제는 2006년 2/4분기에 계절조정 전기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4분기의 1.2%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3/4분기에는 전기대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었다. 이는 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라 우리경제의 구매력이 개선되는 한편, 세계경제 급락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

후 대외여건의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금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추이를 따라 2006년 하반기와 2007년에 걸쳐 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는 기업부문의 재무구조조정 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7%대 중반의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건설투자는 선행지수 등의 추이를 감안할 때 2006년보다 다소 개선된 2%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수출(물량)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증가세가 점차 낮아질 전망이며, 상품수입(물량)도 수출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여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가 뚜렷이 개선되기까지 고용상황의 정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환율 등 물가안정요인이 약화되는 한편 보다 지속성이 있는 서비스물가 및 집세의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 점차 상승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는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